SEOUL
NATIONAL
UNIVERSITY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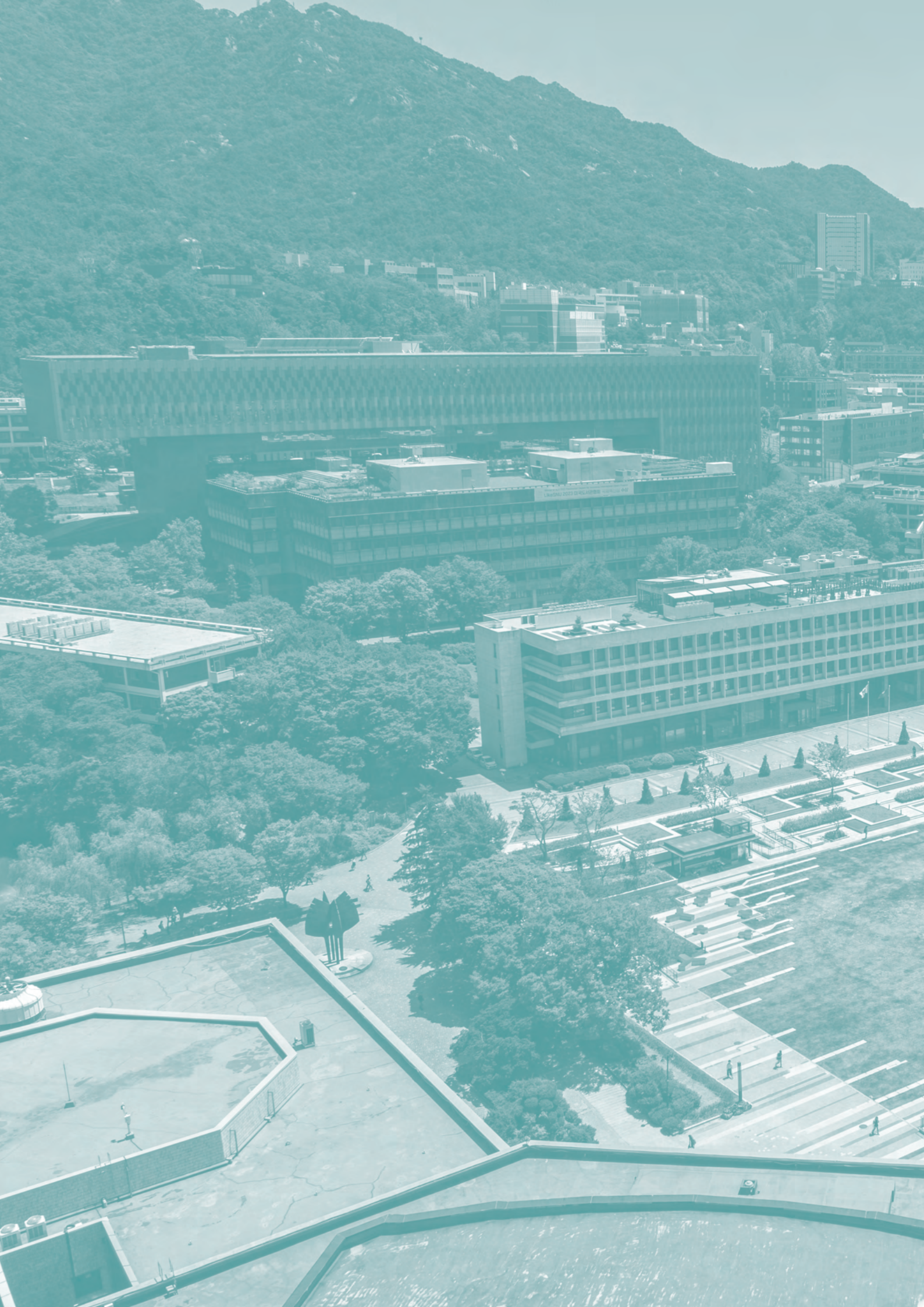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SNU Photo Gallery

저는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할 때면 늘 '불안'이 위험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칠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항상 최고를 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바삐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절 괴롭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할 일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후배 여러분이라면 제 이런 고민에 공감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감정에 조금 익숙해졌을 뿐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무책임한 말이 될까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겠다면 묻어두고 피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마음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씨름해 봤자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삐끗했다고 해서 그간 쌓아온 것이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는 다른 어떤 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채점하듯 살기보다 일기를 쓰듯 유연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솔직한 자신이 언제나 꾸며낸 자신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의 압박과 불안은 때로 우리를 내키지 않는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인내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경우도 있지만 입시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언제나 진정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와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의 큰 활력을 얻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운 과제에 맞부딪혀 보기도 했습니다. 성적에 유리하지 않은 과목을 듣고 고생했지만 견디는 시간 동안 나의 저력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의아한 눈빛을 받을 때도 있었고 스스로 의심한 순간이 없지는 않았으나 저는 이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에 거창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이 3년의 세월이 나에게 가치 있을지,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고 나를 성장시킬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이 대학 입시를 위해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고민과 좌절이 잦고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이 들 시기이지만, 그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둠이 짙어지는 만큼 함께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입은 마라톤이기에, 달리는 도중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장면에 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심을 모아 응원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재학생 K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배의 조언 중에서

CONTENTS

01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12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13

02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15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15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16

0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18
· 면접 안내 25

SEOUL
NATIONAL
UNIVERSITY

0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36**
·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39**
·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42**

05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나와 세상의 경계를 확장하는 공부 **46**
·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를 정말 성장하게 하는 것 **48**
· 독서 + 탐구 + 토론 = 성장 **50**
· 과목 선택. 느릴지라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여정 **52**
· 진정한 나눔과 공동체 의식 **58**

06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61**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66**
· 아로리 사용 설명서 **69**

©SNU Photo Gallery

01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업역량과 적극적인 학업태도,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융합인재'나 '인류사회에 공헌'과 같은 표현이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하고 전인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사회통합)
· 실기위주전형(일반전형_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정시모집

·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
·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농어촌 · 저소득)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특수교육 · 북한이탈)

위 전형 가운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과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업역량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수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농생명계열 고교졸업예정자(농업생명과학대학)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특수 · 북한)	장애로 인해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 학생 ·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0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 면접 안내

서류평가 안내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8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업역량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 관련 활동의 성취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수행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학업역량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역량입니다.** 학생의 학업역량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평가 기준

·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 교과 성적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	4	1	300	98	71.2	15.4
2	2	○○○	4	3	20	94	89.2	4.6
3	1	○○○	4	A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학생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항상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이 종합적으로 기재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학생의 학습에 관한 내용은 학생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 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 배움을 위해 주어진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확인되는가?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내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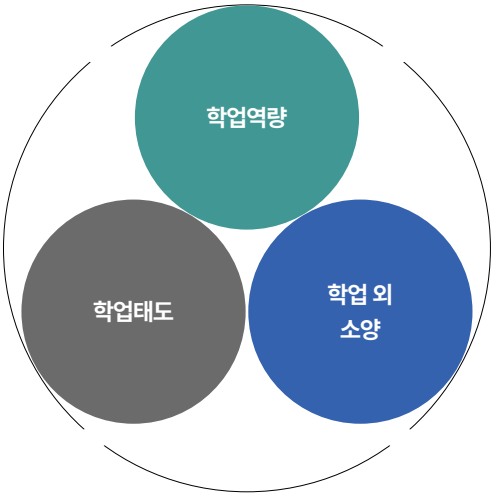
평가 기준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 어떻게 평가하나요

종합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 교과 이수 현황, 교과성취도(정성평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별 학습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관련 동아리활동, 탐구활동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교과 이수 현황 (위계에 따른 과목 선택 노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참여도 및 태도)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학내 활동 등 참여도 및 노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및 자율활동에서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배려심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출결상황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크게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과목 선택 내역,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28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110여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은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해당 모집단위의 전년도 선발 결과 분석 및 전년도 지원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전임입학사정관 두 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이후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비단계

STEP. 1 전임입학사정관 평가

1차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2차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2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3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차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4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3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바탕
기본적인 학업소양 확인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 수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특수교육 · 북한이탈)

서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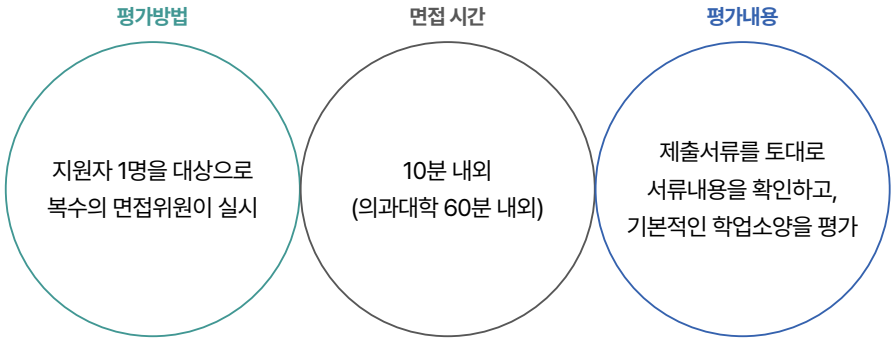
제시문 활용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 수시모집 일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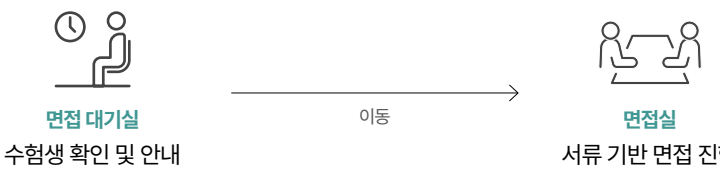
● 서류 기반 면접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의 면접 대상자와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모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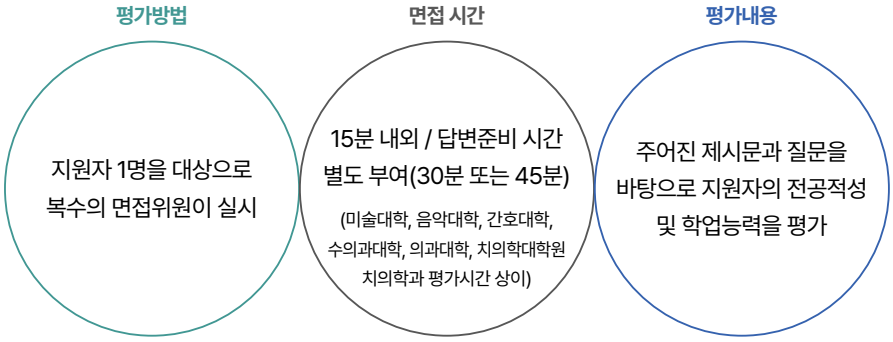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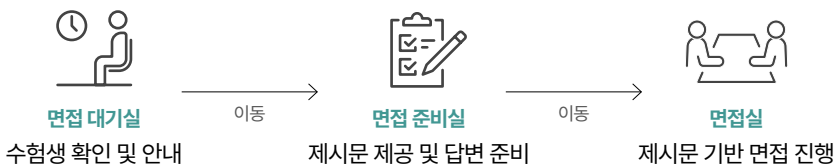
● 제시문 활용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단위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 준비 / 면접)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15분 내외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경제학부 제외)				
	경제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화학부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지구환경과학부	유형 ①~③ 택1	①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②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③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공과대학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식물생산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산림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응용생물화학부	유형 ①~② 택1	①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②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유형 ①~② 택1	①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②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준비	시간 면접
사범대학	교육학과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15분 내외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물리교육과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화학교육과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물교육과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지구과학교육과		·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 전공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아동가족학 전공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식품영양학과		유형 ①~② 택1	①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의류학과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약학대학	약학계열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첨단융합학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유형 ①~③ 택1	①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③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인문학 · 사회과학]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 준비시간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가) 진실을 추구하지만 이야기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혼종 학문인 역사학은 인문학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다른 학문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하다. 역사가들은 원하는 정보 모두를 획득할 때까지 사료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사실'을 다루는 자신들의 깊이를 앞세워 여타 학문의 동료들을 괴롭히는 콧대 높은 경험주의자들이다. 이와 동시에 역사책은 흔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가장 성공적인 역사서들은 대체로 훌륭한 소설의 속성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 역사학의 본질적 혼종성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성과 허구성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쟁의 핵심적 이유이다.

(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은 1942~1943년에 걸쳐 약 38,000명의 유대인 학살 명령을 수행한 독일 101예비경찰대의 재판 기록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학살에 가담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당황한 대원들에게 상관은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빠져도 좋다고 말했지만, 선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80~90%의 대원들이 대량 학살에 가담했다. 브라우닝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나약한 인간이 부당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응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임무를 거부할 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학살 가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브라우닝은 무엇이 보통 사람들을 그토록 잔혹한 범죄에 가담하도록 이끌었는가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고 그의 결론은 집단적 순응성의 압도적인 영향이었다.

(다) 대니얼 골드하겐(Daniel Goldhagen)은 브라우닝과 동일한 사료를 검토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결론은 101예비경찰대의 압도적 다수가 동료들의 압력, 복종, 혹은 자신들의 경력 때문에 학살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냉담하고 잔인한 행동을 묘사한 기록들에서 드러나듯 유대인 학살의 적극적 욕망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골드하겐은, 학살 가담이 내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혐오했다는 대원들의 진술이 자기 변호에 불과하며,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치문화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그의 명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독일인의 반유대 주의적 신념이 홀로코스트를 유발한 핵심 동인이다." 골드하겐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반유대주의라는 당시 독일 사회의 특수성을 문제시했다. 그의 자명한 주장은 앞선 역사가들과 달랐지만, 상당한 대중적 찬사를 받았다.

[문제 1] (가)에서 말한 역사학에서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와 (다)에서 발견되는 허구적 요소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문제 2] (가)에서 말한 '혼종성'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수학 · 과학]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수학 및 과학 교과 제시문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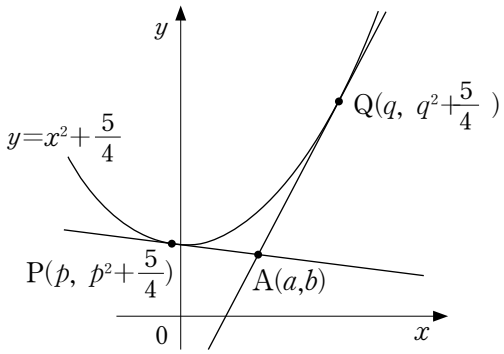
수학(인문)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수학(자연)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물리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I, 물리학II
화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수학, 과학 교과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준비 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

[문제 1] 곡선 C의 방정식은 $y=x^2+\frac{5}{4}$ 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mathrm{A}(a,\ b)$에서 곡선 C에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 두 접선과 곡선 C의 접점을 각각 $\mathrm{P}(p,\ p^2+\frac{5}{4})$, $\mathrm{Q}(q,\ q^2+\frac{5}{4})$ 라고 하자. (단, $p<q$)



1-1. $\frac{\overline{\mathrm{AQ}}^2+\overline{\mathrm{AQ}}^2}{\overline{\mathrm{PQ}}^2}$ 의 값을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2. 점 A가 곡선 C와 만나지 않는 직선 $y=\frac{3}{2}x$ 위에 있을 때, $\frac{\overline{\mathrm{AQ}}^2+\overline{\mathrm{AQ}}^2}{\overline{\mathrm{PQ}}^2}$ 의 값을 점 A의 x좌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적성 ·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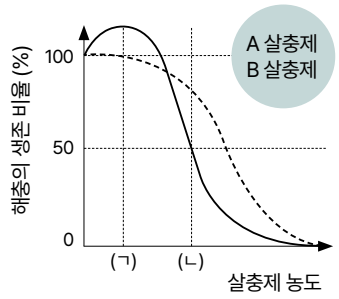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에서는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소양,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미술대학 디자인과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을 평가함 · 서류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 · 답변준비 시간(없음), 면접 시간(15분 내외)	
음악대학 국악과	· 서류평가 자료, 한국음악이론과 서양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음악적 소양 등을 평가함 · 답변준비 시간(없음), 면접 시간(10분 내외)	
간호대학	· 간호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3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수의과대학	·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함 · 면접실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함(5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의과대학	·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6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함 · 면접실 당 10분씩 총 4개 면접실에서 진행함(4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예시 3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적성· 인성 면접

[제시문 1] 수의과대학



[문제 1] A 살충제, B 살충제의 농도별 효과

새로 개발된 살충제 두 종류가 있다. 각 살충제의 농도별 살충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1. 두 살충제의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2. 농도 (ㄱ)에서 B 살충제는 어떤 효과를 일으켰나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본 지원자라면 둘 중 어떤 살충제를 사용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시문 2] 의과대학

명백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고,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차라리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동일성으로 대체해 버린다. 또는 단지 형태학적 특성만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마음의 나머지 특성들은 '조건화'나 다른 비유전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류는 생물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가 보여 주는 결과와 동물의 비형태학적 특성을 유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편리에 따라 무시해 버린다. 그렇게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는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평등에 대한 지지도 똑같이 사라진다.

[제시문 3]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50세인 A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25세부터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일해 왔고, 10년 전 이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최근 불가피하게 공장 직원 50명을 정리해고하게 되었다.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0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각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전형이므로,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관심사를 찾아 공부하는 저의 모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연스레 묻어났기에, 나아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기에 미학과를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밝은 등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 - 인문대학 미학과 K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재학생 K의 생각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에 임하면 됩니다. 나 자신과 나의 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 안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마음껏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학업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럴듯한 활동을 채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므로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 생활을 넘어 사회 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 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경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독서활동목록과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 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 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감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하는 학교라고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변변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고, 지방 인문계 일반고를 다니며 일부 미비한 학교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도로 타자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뜨겁고 절실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
> - 인문대학 재학생 H -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더 알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였나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서울대학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물리학이 좋은데... 물리학I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학I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명과학I은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역량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기를 기회, 자신의 진짜 실력을 쌓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움의 과정은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려요.**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려요.**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모두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지루해하며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직접 다가가 참여의 기쁨을 느끼게 도우셨습니다. 성격이 소심해 수업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을 담임이 아님에도 파악하고 조용히 인도하고 배려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모든 학생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선생님의 쉬는 시간은 언제나 고민과 진로 상담을 하러 온 학생들로 붐볐고 저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교육의 성장과 에듀테크 등 교육계 기술력의 증가로 공교육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선생(先生)으로서의 본질을 잘 보여주셨던 스승님이십니다.*
>
> - 인문대학 재학생 K -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 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임명장만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다양한 능력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리더의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참된 리더의 모습은 말을 독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들을 때,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그저 앞장서서 이끌고 지시하기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잘 '듣는'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
> -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S -

05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나와 세상의 경계를 확장하는 공부
·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를 정말 성장하게 하는 것
· 독서 + 탐구 + 토론 = 성장
· 과목 선택. 느릴지라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여정
· 진정한 나눔과 공동체 의식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은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며 그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2025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한 선배들의 진솔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의 진로 목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선배들의 경험담 속에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여러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도전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Story 1.

나와 세상의 경계를 확장하는 공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새내기 C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면서, 회의감에 빠져 방황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자 저는 비로소 '나는 왜 공부하는 걸까?'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이고 실제로 입시 공부의 동기를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저는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진 지식의 폭이 넓어졌고, 세상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깊이 탐구할수록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과 내용을 그저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내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질문하는 과정이야말로 제겐 진정한 공부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부는 저를 세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역사, 문학, 과학, 철학 등 인류가 쌓아온 지적 유산을 배우면서,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내 안에 새겨 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자,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피로와 긴장보다는 설렘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학대학
약학계열
새내기 C

저는 학습의 목표가 세상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과 차창 밖을 지나가는 풍경 속의 여러 과학적 원리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이나,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제 일상에 적용하여 이해해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앎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저 김 서린 뿌연 유리를 손가락 하나로 닦아내어 그 너머의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흐릿했던 인식이 명확해지는 순간에서 오는 소소한 보람이 저는 공부의 원동력과 목표가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과목 자체에 대해 좋아하는 이유나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어와 수학, 물리학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국어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고, 반박도 해보고, 사례가 나오면 배경지식도 떠올려 보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주위 현상을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적 즐거움이, 수학과 물리학은 추상적이기도 한 개념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조금씩 나아가며 수식을 통해 해답을 얻어내는 과정에서의 뿌듯함과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기도,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할 텐데 그럴 때 공부의 이유에 가장 원초적이기도 한 '재미'가 있다는 것도 그 지속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새내기 H

우리는 흔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은 공부의 결과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부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의 진정한 목표는 텍스트 너머의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서 지문 속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키우며 비판적 사고력으로 그 지식을 응용하고, 문학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에 대해 성찰해보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수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수학과 이외의 다른 교과목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항상 인식하며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유들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과서를 무시하고, 특히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나가야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례로 저는 문학 교과서의 1단원에서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라는 학습목표를 읽고, 문학을 통해 내가 지향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해보자는 저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횔덜린의 『휘페리온』을 읽고 휘페리온의 내적 갈등과 고뇌를 관찰하며 자연세계 속에서 사유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낭만적인 은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찰과정을 정리해 저만의 성찰일지를 작성했고 선생님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 여러분들은 성적을 위한 공부, 입시를 위한 탐구활동 수행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진정한 목표를 생각하며 공부에 임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레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문대학
철학과
새내기 P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던 존재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가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이전에 살아온 조상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며 우리를 둘러싼 전통과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외국어와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문화라는 울타리 너머의 존재들과도 새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비인간 존재들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는 밤에 펼쳐진 별들을 배우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광활한 크기의 우주와도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 맺어진 대상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형태로 살아나 우리와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언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의 형태로, 또 언제는 창의적인 발상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정말 흥미와 기대감이 생기는,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닌가요?**

Story 2.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를 정말 성장하게 하는 것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새내기 M

저는 소위 말하는 '덕후'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무언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기억으로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케이팝을 좋아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고 막차를 타고 집에 내려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중간고사 2주 전이었답니다. 또 고3 때는 드라마를 좋아해 공부를 마친 후 새벽 4시까지 드라마를 보다 잠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돌 덕질이나 영화, 드라마 감상은 오락적인 요소가 다분한 활동이고 그 이유로 많은 수험생들이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변칙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은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돌의 콘서트에 갔다 온 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지, 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지 알게 되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과 정신 없는 시험기간에도 이 고통을 콘텐츠로 승화시키겠다며 브이로그를 찍는 저를 발견한 후 제가 창작물, 특히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언론정보학과로 이끈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꿈을 갖게 된 순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우선 공부라는 영역에서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은 있으나 미래는 불확실하니 일단 현재에 주어진 일부터 충실히 해결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니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버텨 적어도 입시 공부라는 세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모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어찌 보면 그것들이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잠과 바꿀 만큼, 피곤함을 이길 만큼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분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새내기 S

저는 고등학교 3년간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등 많은 교내 대회에 참여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을 왜 계속하냐고 말했고, 제가 대회 준비를 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순간들이 모여 조금씩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일반고등학교에서 교과과목 공부 이외의 다른 경험들은 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의 대회,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이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순간순간의 경험과 느낀 감정들을 잘 기록해 두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면접 준비를 하며, 3년간 발표한 내용들과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뭘 배웠는지 등을 요약해서 잘 정리해 두었다면 면접 준비과정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본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 거예요. **성적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에 얽매여 내 꿈을 찾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의미 있을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새내기 C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희망 진로를 적는 종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진로를 설정하는 기준은 장래의 안정성, 개인적 흥미, 사회적 기여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특히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 감정만으로 진로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 걸까?', '이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보다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와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학을 처음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문학을 통해 아직 모르는 세계를 만나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삶과 대화하며 공감하는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무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문학이 제게 준 감동과 울림이 떠오르자, 다른 불안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일. 그것이 저에게는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며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 실패하더라도 끈기 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첨단융합학부
새내기 H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를 바꾸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학공학에서 전자공학과 반도체로 진로를 바꾸면서, 처음부터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것은 스스로의 적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진로가 바뀌기 전과 후 둘 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학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되어있다고 느낀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융합과학탐구' 과목을 수강했는데, 해당 과목을 통해 처음으로 실험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존 교과 수업에서 했던 실험들은 모두 정해진 실험 내용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주제 선정부터 계획, 실험, 데이터 정리,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2학년까지 수학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여 실험 경험이 거의 없던 저로서는 이러한 자기주도적 실험이 큰 도전이었고, 이 과목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을 크게 기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실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로 궁금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고 싶거나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것을 실험 주제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학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탐색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Story 3.

독서 + 탐구 + 토론 = 성장

인문대학
철학과
새내기 P

고등학교에 다니던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돌아보면 아쉽게 소모해 버린 시간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귀중하게 쓰여 저 자신이 성장하게 된 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것은 1~3학년 내내 진행한 소그룹 토론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약 네다섯 명씩 조를 짜고 그 조 내에서 자율 주제 탐구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한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며 정말 많은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룹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 논리적 오류들을 정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때의 침착함과 자신감,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교과 외적인 지식을 마음껏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 제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과목의 지식을 접하기도 하고,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J

저는 '공동교육과정'과 교내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는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제가 진짜 궁금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국제정치'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각 학생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모의 유엔을 열었고, 해당 주제는 제가 상정했던 '난민 수용'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여태껏 잘 몰랐던 난민의 현실들과 현황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입장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발제문을 구성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며 조율안을 이끌어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국제정치라는 과목을 통해서는 단순히 국제 정세가 어떤지에 대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연대감이 생겼고,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생각나는 활동이 교내에서 시행했던 '질문하는 책 읽기' 활동입니다. 고등학교에 오면 학업으로 인해 여유롭게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책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편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 오히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행한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작은 위로이자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지오웰의 『1984』를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대와 너무 비슷해서 놀라운 점도, 추상적인 표현들에 궁금한 점도 참 많습니다. 책을 읽고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쩌면 답이 없을 질문에 나만의 답변을 달아보는 것은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2차 함의에 대해 고민해 보며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입시를 치르고 계신다면 여러 책을 읽는 것이 힘에 부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충분히 곱씹고 음미하며 읽어보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질문을 던져 보고, 또 더 파고들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학대학
약학계열
새내기 C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던 활동은 1학년과 2학년 때 진행한 독서활동이었습니다. 1년에 총 4권의 책을 읽으며 주어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토론하고, 다시 이를 기록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그저 몇 줄에 불과했던 저의 생각이 학년이 끝날 때는 작은 글씨로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고 나서 역설적이기도 한 제목인 '오래된 미래'와 '반개발'이라는 용어, 그리고 통합사회 교과에 나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엮어 생각하며 써 내려갔던 글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오래도록 남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저의 사고의 폭과 글쓰기 실력을 늘려주는 자양분이 되었고, 이는 2학년 때 제가 책을 읽으며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타심과 이기심의 관계, 공생의 정의, 미생물 관련 연구 윤리 등의 질문에 그동안 읽었던 많은 글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새롭게 찾아낸 정보들로 답하였으며 더 나아가 격주로 소규모 탐구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여러 번 활동하면서 오히려 부담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독서가 고등학교 시절의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새내기 S

제 생각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게 한 또 다른 교내 활동은 탐구활동입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보고서로 제출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탐구가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고 여러 분야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사회상이나, 이슈, 기술 등을 접하고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찾으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탐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해 생각을 하며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쓰며 나의 주장이나 내가 분석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글의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전달받는 객체가 아니라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연결하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자율적인 학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를 3년간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탐구를 확장시키거나 연계해 다른 활동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Story 4.

과목 선택. 느릴지라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여정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J

비인기 과목이었던 경제를 들으면서는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생각만 해왔던 경제 원리가 머릿속에서 선명해지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공부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교무실 압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교무실에 자주 들락날락하며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과목은 소인수였기에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가 더 많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현재 물가와 최저시급의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시사 이슈를 경제적으로 다루어보는 등의 활동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저 좋은 성적을 위해 수동적인 공부를 했던 예전과는 달리 진짜 내가 능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던 분야인 난민, 지역 소멸에 관련된 탐구를 하면서는 이전과 같이 일회성 탐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 전시나 학회에 가기도 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직접 시청 측에 건의하고 소통하며 작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는 길이 느릴 수는 있어도 분명 나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학대학
약학계열
새내기 C

고등학교 이수 과목 선택 시 제1의 기준은 저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초등에서 중등, 고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에서 위계를 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겪는 선택에서의 딜레마 중 하나로 '등급이 잘 나오지 않고 자신 없는 필수적인 과목 vs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더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그 숫자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과목에서의 성취도를 단순히 등급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힘든 환경을 거치며 자신만의 노력을 해온 사람을 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그 기본을 쌓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정한 배경에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것의 선행 단계인 기본도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딪혀보기 전에는 한계가 어디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한계라는 것은 생각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을 거에요.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새내기 K

3학년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할 때가 왔을 때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에 따라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 모두를 이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대학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학과 공부와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기하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물리를 공부했을 때보다 기하 과목을 깊이 이해하고 물리를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지식,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의 범위가 확연히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고 싶은 학과나 희망 진로를 정했다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에 기재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모두를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새내기 K

3학년 때 사회 탐구 선택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대신 '정치와 법'을 선택한 것도 제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문과 친구들이 생활과 윤리를 수강할 때, 저는 경제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을 더 탐구해보고 싶었기에 수강생이 비교적 적었음에도 '정치와 법' 수업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함께 선택했던 것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계열 진학을 희망했고 수학을 꽤 좋아했기 때문에 두 수학 과목을 동시에 선택했는데, 수학이 공부 시간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과목 모두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해서 성적표를 받고 '하나만 선택할 걸!' 하고 후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둘 모두 도전해본 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통계 데이터 분석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미적분에서는 관련 경제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확률과 통계', '미적분' 중 하나라도 배우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명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그 자체로써 '미적분' 과목은 제 성향과 잘 맞았기에 공부도 꽤나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새내기 K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나서는 그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수학은 여러 방면에서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들었고 과학은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 융합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은 과목 선택 인원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특히 9등급제로 평가되었던 '물리학Ⅰ'은 1등급 인원수가 두 명뿐이어서 새로운 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즈음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학년 1학기에 '물리학Ⅰ' 과목의 전교 3등이었음에도 적은 수강 인원로 인해 2등급을 받아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리학Ⅰ' 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성적을 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스로 맞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2학기에는 '물리학Ⅰ'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최선을 다하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니까요.**

참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함
·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인문대학	인문계열	-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
	경제학부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사회학과	-	-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통계학과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천문학전공	· 지구과학I, 미적분, 기하	· 지구과학II,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화학부		· 화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II, 미적분	· 화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 물리학II 또는 화학II 또는 지구과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경영대학			-	-
공과대학	광역		· 미적분, 확률과 통계	· 기하
	건설환경도시공학부		·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화학II,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 물리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I 또는 화학I
	건축학과		-	· 미적분
	산업공학과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원자핵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 물리학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지구과학II, 확률과 통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 생명과학II	·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화학II, 생명과학II	-
	응용생물화학부		· 화학II, 생명과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또는 화학II
	스마트시스템과학과		· 미적분	· 물리학I 또는 화학I 또는 생명과학I
미술대학	동양화과		-	-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디자인과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범대학	교육학과		-	-
	국어교육과		-	-
	영어교육과		-	-
	독어교육과		-	-
	불어교육과		-	-
	사회교육과		-	-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 물리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 화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 생명과학II	·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교육과		· 지구과학I	· 지구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체육교육과		-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	-
		아동가족학전공	-	-
	식품영양학과*			· 화학I, 생명과학I
	의류학과		-	· 화학I, 생명과학I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생명과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대학	약학계열		· 화학I, 생명과학I	· 미적분, 화학II 또는 생명과학II
음악대학	성악과		-	-
	작곡과			
	음악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의과대학	의예과		· 생명과학I	· 생명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첨단융합학부*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I 또는 화학I 또는 생명과학I
학부대학	광역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

※ 인문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없음

*** 2025학년도 대비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 변경 모집단위**

·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첨단융합학부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왜 지정되었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각자가 지닌 적성과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합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핵심 권장과목 및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집단위별 **핵심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며, 권장과목은 모집단위 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아울러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이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 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각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의 이수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 서울대학교는 **고교 재학 중 학생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며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다양함을 알고 이를 평가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과목 내용에 나타나는 적극성과 충실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Story 5.

진정한 나눔과 공동체 의식

의과대학
의예과
새내기 M

고교 생활 중 가장 저를 많이 성장시킨 활동을 꼽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었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입니다. 더이상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외 봉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봉사의 중요성이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지역 독거노인분을 만나 함께 대화하고 노인분께서 갖고 계시는 고민에 대해 직접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의료 문제와 독거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해 노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의 의료 불평등, 노화성 질환, 고독사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거 노인 도시락 봉사활동은 단순 봉사를 넘어서 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노화성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로 돌아가 노화성 질환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와 관련한 항산화제 실험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활성산소를 주제로 탐구를 하고, 또 암, 면역과 연계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문제를 기사를 넘어 실제로 접하면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도시락 봉사는 고독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접한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탐구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점에서 고교 생활 중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봉사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글로만 만나 봤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새내기 H

저는 3년간 꾸준히 해왔던 멘토링 활동에서 가장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각 교과목 시간에 정하는 공식적인 멘토 활동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학급 내에서 학습에 어려운 친구들을 자주 도와주곤 했습니다. 매 쉬는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국어, 영어, 수학 개념들과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능하게 했으며 스스로의 공부에도 큰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했고, 이러한 약간의 긴장 상황은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친구들뿐 아니라 저의 성적도 많이 향상되어 지식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혼자서만 그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해 모두의 발전을 가져오게 해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지도선생님 두 분과 세 개의 학년으로 구성된 이 토론 동아리에서는 스승과 제자, 고학년과 저학년이라는 위계를 넘어서 평등한 인격체로서 책 한 권과 그 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만의 특징은 **숨김이나 과장 없이 자신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각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새내기 H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활동은 저에게 공부하는 이유와,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의 목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학년 친구에게 질문을 받고, 모의고사 풀이를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또래 멘토링 활동과, 중학교 3학년 후배에게 전체적인 공부 방법과 습관을 잡아주고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는 후배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또래 멘토링 활동은 같은 반 친구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함께 학습활동을 하는 동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과 공부를 할 때의 고충, 목표 등을 더 자세히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을 직접 도와주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남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모의고사 풀이를 해주면서 모범답안과 답을 고르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디까지 알고, 익히고 있는지를 다시 시험해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개념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해보아라'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고 과정을 명확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문제를 풀 줄 아는 것 이상으로 해당 개념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 멘토링 활동은 제가 공부를 하는 데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새내기 K

저는 교내 봉사활동의 일환인 '굿프랜드'라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같은 반의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를 지닌 학생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1학년 때 반에 지적 장애를 지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의 해결도 쉽지 않았고, 학업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도와줘야 할지, 도와줘도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곤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굿프랜드' 활동을 하며 그 친구와 학교생활과 별개로 추가적인 경험들을 함께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컸습니다. 저희는 함께 볼링장도 가고, 달고나 만들기, 편지 쓰기, 베이킹 등 많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활동 중간중간에 친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보고, 장애를 지닌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결정적으로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제 이름을 답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그 친구를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면서도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기에, 후배님들께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06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활동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목소리를 빌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책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K

제가 그랬듯이 대입이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지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여러분이 노력했던 순간,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지금을 믿고 겁먹지 말고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서울대학교는 그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에 계속 되뇌었던 말이 딜런 토머스의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입니다. 항상 제가 지칠 때마다, 지레 겁을 먹을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며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대입 생활을 씩씩하게 견뎌내시면 누구보다 빛나는 대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대학교는 정말 공평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교가 통하지 않는 냉정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만큼 성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의 목표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J

여러분은 대학 입학을 위해 평가받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가장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쓰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탐구활동의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주제가 가장 돋보일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 정말 여러분을 자극하는 궁금증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 궁금증이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보려고 마음 먹는 순간, 처음에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의 경중을 당장 구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끌리는 주제를 탐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 과정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여쭤보고, 주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분명 원석 같은 학생을 놓치지 않고 발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3년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C

돌이켜보면 제가 입시 과정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못해도 돼'였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저 역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험생활을 모두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못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시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입시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한다면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대학교는 여러분에게 경험의 기회와 배움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깨달음의 내용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떤 곳에 있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녹슬지 않게 윤을 내는 부지런함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밝은 빛을 내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학대학
약학계열
C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의 많은 부분은 두려움이었다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목전에 앞두고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을 때, 돌아본 나의 생활기록부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기한은 임박했는데 제대로 된 것은 없어 보일 때는 그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제 몫이었고, 그저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다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바탕에 있던 것은 저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라면 저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혼란과 두려움도, 그걸 잘 헤쳐나온 여러분 자신도, 자신 없어 보이는 과거도 사실은 꽤 괜찮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입시라는 장기간의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에서 환하게 웃을 자신을 상상하며 그 미래의 연장선인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부디 너그럽게 바라보고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S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서도 짧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며 결과에 만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3년간 계속 좋은 성적을 보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 싫은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중간에 쉬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힐 때에는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질책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포기는 다릅니다. 휴식은 공부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도 취미생활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3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행사도 참여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공부와 내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대학
S

여러분께서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수시모집에서 운영하는 전형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여러분을 선발하고 싶어할까요. 조금 먼저 입학한 학생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담아내기도 하지만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 그러나 숫자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사실인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선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위 표현은 내신 수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에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고, 그 결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OO도서가 생활기록부에 들어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던데'와 같이 단편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활동한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활동을 하며 고등학교 시간 3년을 보낸다면 서울대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학생을 알아봐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믿고, 또 본인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고, 마침내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H

제가 수험생활을 하며 가슴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책에 찍힌 수많은 점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매일같이 쌓아온 작은 노력이 결국은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별이 되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라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길을 믿으며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언젠가 여러분만의 빛나는 별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서울대학교에서 혹은 또 다른 멋진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길을 응원합니다.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S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한 번의 실수로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면 제가 생각한 미래를 만들 첫단추를 꿰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학교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이 시간에 교과 과목 공부를 하는 게 대학교 입학에 있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3년간의 고교 생활에서 배운 바를 통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교과 내용을 배우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동아리, 발표, 여러 대회 등)을 하며 행복하게 3년을 보냈어요. 후배분들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많이 배우며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K

저의 이 글을 읽을 여러분들이 몇 학년일지,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 놓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모의고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한 번 미끄러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장 과정이 늘 순탄할 수 없습니다. 노력이 무조건 보답받는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보답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충분히 스스로를 극복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의미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은 나중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입시 결과가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입시에 목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글을 보면 작년의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과거의 저 자신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K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분들에게 무언가 조언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입장에서 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꿈이나, 멋진 동기부여 같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면 회의감에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고, 지금 오늘 이 과제를 하는 것도 벅찬데 미래를 계획하라니… 하지만 저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일을 잘 못 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지내는 일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온전히 몰입하는 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후배분들도 오늘 목표한 공부를 하고, 궁금한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하고, 여러 탐구활동을 진행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쌓으시길 바라요. 당장 그 효과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훌쩍 성장한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P

서울대학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적과 비교, 불확실한 결과, 진로에 대한 혼란 등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역시 그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기도 했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밤잠을 설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공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몰입하는지, 어떤 질문에 끌리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성장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단지 '스펙이 높은 학생'을 뽑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방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곳이에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색깔과 시선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입시 준비는 절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친구, 선생님, 가족... 여러분 곁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선생님과 나누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갔어요.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함께 발견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고 지금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인문대학
철학과
S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제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살았던 문장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lige tibi quid diligas(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를 선택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그것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여러 고난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서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일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남은 시간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 마침내 여러분의 목표에 이를 수 있기를,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인문대학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Y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 입학은 단순히 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함께 길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를 조금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고통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탐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기만 해주세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멋지고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1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과 기준은 같습니다.

Q.2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혹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4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Q.6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Q.7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8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9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전공연계 교과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Q.10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11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12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 · 북한이탈)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 「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 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교 생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들의 서재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읽었던 도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 이슈이슈!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와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했던 선배들의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와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면접 안내	학생부종합전형면접 안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학교 면접 우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소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메뉴입니다. 전공 소개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전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snuarori.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Tel. 02.880.5022(서류제출 확인, 지원자격 관련 문의)
02.880.6974~6(서류평가 관련 문의)
Fax. 02.873.5021

※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